

韓中日 작가 12명이 그린 '도시'와 '성'

'짧은 도시, 오래된 성'

이승우의 지음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작가들이 '같은 소재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다.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의 '자음과 모음', 중국의 '소설계', 일본 '신조' 3개의 문예지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성(性)'이라는 같은 소재를 놓고 각각의 작가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 써내려간 소설이다.

그 결과물인 '짧은 도시, 오래된 성'에는 모두 12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첫번째 주제는 '도시'. 일본의 시마다 마사히코 작품 '사토 도쿄'는 이미 죽은 주인공이 1970년대로 돌아가 48시간을 체험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판타지 형식을 통해 도시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린 작품이다.

중국 작가 위샤오웨이 '날씨가 참 좋았다'는 절도와 마약 거래 혐의로 두번이나 감옥에 다녀온



주인공이 또 다시 강도 사건에 엮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소설가 이승우의 작품 '같은 칼 수집가인 주인공을 통해 힘없고 약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2010년 황순원문학상 수상작이다. 데뷔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김애란 작가는 재난을 소재로 한 '물속 골리앗'(2011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을 내놓았다.

그밖에 시바사키 도모카의 '하르툼에 나는 없다', 우통의 '상차오잉'을 만날 수 있다.

두번째 주제는 '성(性)'이다.

중국 작가 쉬이과의 '해산물은 나의 운명'은 중산층 가정의 주인공부와 가정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본 작품이며 거수이킹의 '달빛은 누구 머리맡의 등장인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배경 삼아 독일과 중국 그 어디의 사고방식에도 적용하

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주인공의 내면을 살핀다.

한국 참여 작가는 김연수와 정이현이다. 김연수의 작품 '사월의 미, 칠월의 숲'은 유부남인 영화감독과 제주도에서 석달을 보내고 돌아온 이모의 이야기를 조카인 '나'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작품이다.

정이현의 '오후 네 시의 농담'은 주인공이 마트에서 우연히 대학 후배 J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내, 아이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에게 J의 존재는 자극을 주지만 그녀에게서 AIDS 환자라는 고백을 들은 그는 혼돈에 빠진다.

일본 작가 고노 다에코의 '붉은 비단'은 오빠의 친구와 결혼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잔잔한 일상에 파문을 던지듯, 남편이 출장간 사이 도둑이 들고, 이 사건으로 인해 주인공이 겪게되는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짚어내고 있다.

책 말미에는 각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실어 작품 이해를 돕고 있다.

(자음과 모음·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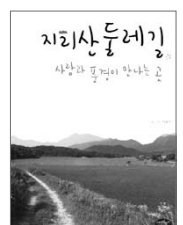
5개 구간 16개 코스... 마음의 걷기

'지리산 둘레길'

이송이 지음

중앙일보 '프리미엄 섹션' 등에서 여행기자로 일해온 이송이씨가 올해 새로 조성된 길을 포함, 5개 구간 16개 코스로 확장된 지리산 둘레길의 상세 정보를 담은 '지리산 둘레길-사랑과 풍경이 만나는 곳'을 출간했다.

책은 3개도, 5개 사·군 100여 마을을 잇는 800리 지리산 둘레길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간이 끝날 때마다 여행자가 궁금해 할만한 가성질문과 답변을 담아 여행 전 준비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준다. 또한 '길 위에서 잠깐!' 코너에서는 걷기여행 중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할

곳을 꼼꼼하게 짚어준다.

길 위에서 만나는 솔한 사람들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마음으로 걷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 일반적인 여행 안내서와는 다른 진한 감동이 전해진다.

(스타일북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임스 본드, 소설로 만나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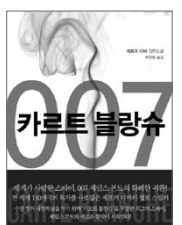
'007 제임스본드 시리즈'

이언 플레밍 지음

할리우드 영화 007시리즈가 영화로 알려졌지만, 그 뿌리가 소설이라는 사실은 아는 이는 극히 적다.

문학에디션북이 영국작가 이언 플레밍(1908~1964년)의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번역, 출간해 국내 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1차로 제임스 본드 단편 전집인 '퀵 템프 오브 솔러스'와 '카지노 로얄' '죽느냐 사느냐' '나를 사랑한 스파이' 등과 제임스 본드 시리즈 신작 장편 '카르



트 블랑슈'까지 다섯 권을 먼저 펴냈다. '카르트 블랑슈'는 이언 플레밍 재단의 의뢰로 영미권 인기 스티븐 작가인 제

프리 디버가 올해 발표한 작품이다.

출판사는 시리즈 후속으로 '다이아몬드'는 영문학 '리시어에서 온 사람' '타터 노' '황금 총을 가진 사나이' 등

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문학에디션북·

각 권 1만2000원~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제강점기, 하나오카 광산에선 무슨일이

'땅밑의 사람들'

마쓰다 도키고 지음

일제강점기의 조선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본 근대문학을 연구해온 김정훈(전남과대학 교수)씨가 노동운동가이자 작가인 마쓰다 도키고(1905~2004년)의 '땅밑의 사람들'을 번역·출간했다.

이번 소개된 '땅밑의 사람들'은 일본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이 저지른 하나오카 참극(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아카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중국인 포로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을 작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쓴 르포르주이다.

소설은 하나오카 사건의 발단이 된 나나쓰다테 사건(1944년 5월 29일 나나쓰다테 광 위험을 흐르는 강이 함몰되어 일본인 11명, 조선인 11명이 생매장 된 사고)



의 배경, 조선인 징용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희생, 중국인 포로의 붕괴, 중국인 포로의 학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작가가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 취재한 기억을 되살려 충실히 그려냈다.

조선인 징용자와 일본인 노동자들이 갯에 갇힌 동료들을 구출하는 장면은 극적이며 조선인 일씨와 일본인 도쿠코의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흥미를 넘어 감동을 선사한다.

김씨는 "소설은 일본제국주의와 국가 이데올로기에 맞선 한·중·일 서민연대의 기록"이라며 "동북아시아의 화합과 공존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감동과 희망을 주는 책으로 읽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우·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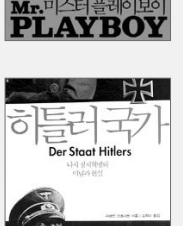
▲거짓 미술관 1, 2=환상문학의 대가 미하엘 엔더를 잇는 독일 작가 랍프 이자우의 지적 스릴러물.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일어난 연쇄도난사건,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음모를 파헤친다. 과학소설, 철학적 사유, 로맨스를 섞어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숨막히는 이야기 전개 속에 진화와 복제인간에 대한 문제적 메시지가 녹아있다. <비룡소·각 권 1만3000원>

▲미스터 플레이보이=의사의 경계선에 선 남상잡지 플레이보이의 창업자로 60년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남성들의 환상을 자극해 온 휴 헤프너(85)를 다룬 평전이다. 역사학자 스티븐 와츠가 극단적인 논란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저택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백발 노인의 이미지로 다소 회화화된 헤프너의 진면목과 위상을 진지하게 살폈다. 그가 어떻게 성 혁명가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위신까지 얻게 되었는지 분석했다.

<나무이 이야기·2만5000원>

▲히틀러국가-나치 정치혁명의 이념과 현실=독일 현대사연구소가 이끌었던 마르틴 브로 샷트(1926~1989년)가 1969년 출간한 독일 나치즘 연구의 고전. 나치 개개인의 의도를 중심으로 나치즘을 설명하는 연구와는 달리 나치즘의 작동 방식에 주목하는 '기능주의' 연구를 통해 나치즘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을 뒤엎었다. 독일에서 유학한 김학이 동아대 사학과 교수가 옮겼다.

<문학과지성사·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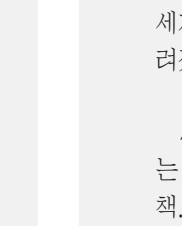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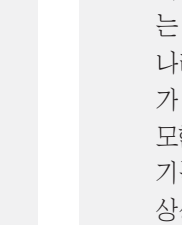


▲줄리언 어산지='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불리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실체를 밝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널리스트 앤드루 파울러가 유랑극단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던 어산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장해온 길을 재구성하며 그가 기밀주의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동기와 진실 추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상상하게 전하고 있다. <멜론·1만5000원>

▲방자 왈왈=소설 '봄바람' 등을 쓴 진도 출신 작가 박상률(53)씨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소년 소설.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상춘향에 가려져 '민년 조연'이던 방자를 발군의 상상력과 기막힌 아이디어로 재탄생시킨 소설로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도 엿볼 수 있다. 방자의 본명은 고두희고, 춘향은 밀고 당기기의 고수였다는 엉뚱한 상상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이야기는 유쾌한 웃음을 준다. <사계절·9000원>

▲나는 나의 꽃=2007년 '건조주의'로 현 대문학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등단한 순천 출신 강진(43)씨의 첫 번째 소설집. 표제작 '나는 나의 꽃' 등 삶과 죽음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다룬 단편 아홉 편을 모았다. 해부 실습실, 말기암 환자, 사고사 등 죽음이 가까운 순간과 그와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삶의 의미를 되짚는다.

<자음과모음·1만원>



▲잠들지 못하는 밤=올해 볼로냐 국제어린이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한 강경수씨의 새로운 작품이다. 소소한 걱정거리로 통 잡에 들지 못하는 소년 '올' 앞에 잡의 나라 공무원인 할아버지가 나타나 올이를 데리고 모험을 떠난다. 특별한 애가 아니라 아이들이 상상할 법한 천진난만한 세계가 재기 발랄하게 그려졌다.

▲영무새의 부활=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가 글을 쓴 그림책.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짙은 우화를 통해 전한다. 작고 약한 영무새가 냄비에 빠져 죽자 소녀는 영무새 친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오렌지와 불꽃은 잠든 영무새를 자깨한다. 결국 많은 이들의 슬픔이 영무새를 아름다운 인형으로 빛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한다. <살림어린이·1만원>

▲로타는 기분이 좋아요=로타는 집안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일

때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담았다. 어느 날 갑자기 전학 온 전학생 '마살', 그리고 얼마 후 전학 온 '엘리자베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 두 전학생 친구와 주인공 '나'의 반 아이들이 서로 친하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서로 마음을 인종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이세움·1만5000원>

▲로타는 기분이 좋아요='달광령이 삐뚤'로 유명한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년)의 미발굴 그림책.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들뜬 아이들의 심리와 함께 남매, 자매 등 형제들 사이의 미묘한 경쟁과 다툼, 우애를 그렸다. 스웨덴의 특별한 부활절 풍경을 토라지고 화를 냈다가 의기양양해하고, 조마조마해하다 다시 기뻐하는 등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변화가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저거봐, 마디타, 눈이 와!'도 함께 나왔다.

<바람의아이들·9000원>



어린이 책꽂이

▲잠들지 못하는 밤=올해 볼로냐 국제어린이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한 강경수씨의 새로운 작품이다. 소소한 걱정거리로 통 잡에 들지 못하는 소년 '올' 앞에 잡의 나라 공무원인 할아버지가 나타나 올이를 데리고 모험을 떠난다. 특별한 애가 아니라 아이들이 상상할 법한 천진난만한 세계가 재기 발랄하게 그려졌다.

▲영무새의 부활=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가 글을 쓴 그림책.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짙은 우화를 통해 전한다. 작고 약한 영무새가 냄비에 빠져 죽자 소녀는 영무새 친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오렌지와 불꽃은 잠든 영무새를 자깨한다. 결국 많은 이들의 슬픔이 영무새를 아름다운 인형으로 빛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한다. <살림어린이·1만원>

▲로타는 기분이 좋아요=로타는 집안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일

때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담았다. 어느 날 갑자기 전학 온 전학생 '마살', 그리고 얼마 후 전학 온 '엘리자베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 두 전학생 친구와 주인공 '나'의 반 아이들이 서로 친하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서로 마음을 인종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이세움·1만5000원>

▲로타는 기분이 좋아요='달광령이 삐뚤'로 유명한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년)의 미발굴 그림책.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들뜬 아이들의 심리와 함께 남매, 자매 등 형제들 사이의 미묘한 경쟁과 다툼, 우애를 그렸다. 스웨덴의 특별한 부활절 풍경을 토라지고 화를 냈다가 의기양양해하고, 조마조마해하다 다시 기뻐하는 등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변화가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저거봐, 마디타, 눈이 와!'도 함께 나왔다.

<바람의아이들·9000원>